

조선 국회의원 132명... 현역교체율 44% 달해

민주 60명, 국힘 28명, 개혁신당 1명
이준석 대표, 4수 끝 국회입성 성공
비례대표 선거서 46명 중 43명 조선
조국혁신당, 12석... 원내 3당 만들어

제22대 국회에선 전체 의석수의 3분의1이 넘는 132명의 조선 의원들이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해결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조선의원은 132명에 달했다. 비율로는 44%로, 약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데뷔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조선 의원은 총 151명으로 50.3%의 비율이었는데, 22대에서는 인원과 비율이 각각 감소했다.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민주당은 조선 의원이 60명, 국민의힘은 28명, 개혁신당은 1명이 조선 의원이 됐다. 지역구 조선 의원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은 단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다. 이 대표는 청년과 대기업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읍에 출마해,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벌인 결과 금빛을 달았다. 이 대표는 현정 사상 첫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30대 당 대표란 타이틀을 달았지만, 3번의 출마에도 낙선했는데 4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막말과 편법 대출 의혹을 받은 후보들도 조선 국회의원이 됐다. 경기 수원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수원정에는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가 의원이 됐다. 역사학자로 활동했던 김준혁 당선인은 과거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해 고(故) 박정희 대통령 등 한국 현대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내곤 했는데, 과격한 발언도 더해지면서 총선 막판에 큰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 후

보였던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도 '대과값' 관련해서 실언을 하면서 경기 수원정은 '막말' 후보가 조선에 도전하는 지역구가 됐다. 결국, 막판에 이수정 후보가 역전당하면서 김준혁 당선인이 조선 국회의원이 될 예정이다.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선 국회의원에 오른다. 변호사로 활약해온 곽 당선인이 장인어른인 노 전 대통령과는 어떤 색다른 정치를 보여줄 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사실, 조선 국회의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다.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선 전체 46명 중 43명이 조선을 차지했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각각 1명씩, 조국혁신당에서 1명이 현역 의원 출신이었다. 국민의미래에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용혜인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의원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됐다.

비례대표 중에서 가장 화제성이 있는 조선 국회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에서 12석을 가져가면서 원내 3당을 만들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보다 선명한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는데, 공약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 도입, 권력 기관 지방 이전 등을 공약해 과연 제22대 국회에서 실제로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조국혁신당 “尹에 하고싶은 말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 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꼼잡하고 압살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달성은 무산되었고,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당인 175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가 윤 대통령과 만남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회동 관련한 질문에 “정치라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거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2일 YTN 방송에 출연해 “두 분(윤 대통령, 이 대표)의 만남을 하지 말라 한 참모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신임해 후회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그 (두 사람의 만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與 고동진·野 안도걸 등... 경제 전문가들의 국회 입성

국제경제 ‘시계 제로’... 전문가 절실
與 추경호·이종욱·조정훈 당선인
野 조인철, 조국혁신당 이해민 ‘주목’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를 입법과 정책 능력으로 구해낼 기업인, 경제 관료 출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관심이 쏠린다.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민생은 어렵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면전에 돌입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등 국제정세도 ‘시계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경제 전문가의 국회 진출은 절실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눈여겨 볼 당선인은 평사원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까지 지낸 고동진 강남구병 의원이다.

여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에 공천을 받아 무난하게 국회에 입성한 고 당선자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성공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고동진 강남구병 당선인 안도걸 광주동남을 당선인

전임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유롭게 대구 달성군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한 추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정책과 예산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경남창원시진해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황기철 후보를 단 497표 차로 이긴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는 기획재정부 기초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여당에서 국제경제 전문가는 조정훈 마포갑 당선인이 꼽힌다.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조 당선인은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에 도전해 경찰 출신 이지는 후보를 꺾었다. 조 당선인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광주동남을 당선인이 당의 경제통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안도걸 당선인이 민주당에 입당할 때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하면서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와 원만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많이 보여줬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광주서갑 당선인도 전직 경제 관료로 실무에 능숙하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역임했다.

다만, 고동진 당선인과 함께 대기업 대표(현대차 사장)를 지내 국회 입성이 주목받았던 공영은 후보는 경기 화성읍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에게 패배해 도전을 멈췄다.

원내3당인 조국혁신당에선 이해민 당선인이 관심을 끈다. 이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 구글의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출신으로 기업과 IT 입법, 정책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맡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맞서 과학기술 예산을 정부 지출의 7%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펴 눈길을 끌었다.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참모 교체하는 ‘소폭개편’에 그칠 수도

» 1면 ‘총선 패배尹’서 계속

거기마다 기본적으로 총리나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는 기용 전 인사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날이나 금주에 후임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인적 개편의 폭과 내용에 따라 쇄신의 의지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안보실장을 제외한 대통령실 실장·수석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할 지 여부도 고심거리다.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의 사의는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반려했을 수 있으며,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참모를 교체하는 ‘소폭 개편’에 그칠 수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인적개편과 입장 발표를 같이 할 지 등도 검토 중이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제1호 추진과제 ‘채 상병 특검’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 힘 보태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제1호 추진과제는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은 총선 한참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과 책임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요 현안이 된 바 있다.

특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정부에 의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민심을 흔들었다.

이 전 장관은 총선을 한달 앞두고 자신 귀국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의석수 단독 과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별검사제’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장에서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주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검법 신속처리안건은 현재 본회의에 자동부속된 상태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